

일본의 하세도라 방적 - OEM 공급 호조로

방적 부문의 판매고 증가

일본의 기후현 하시마시에 있는 하세도라 방적의 방적 부문은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 2004년도 상반기의 판매고가 전년 실적과 비교하여 두 자리 수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OEM(주문자 브랜드 생산) 공급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OEM 공급은 하시마시에 있는 1만 5천 추 규모의 공장에서 방적된 원사를 중국의 남통 지구에 있는 협력 공장으로 공급해 주면 편성·봉제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미즈노”에 OEM 방식으로 공급해 주고 있는 “블레스 서모”는 해마다 공급량이 증가하고 있다.

스포츠 어패럴의 등산용 셔츠나 트레킹(trekking) 분야에 “인비스타”의 특수 폴리에스터 섬유 “다크론 QD”를 사용한 셔츠도 혼방하는 원료를 달리함으로써 차별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차별화는 고도의 방적 기술로 가능하기 때문에 원사 공급은 대체로 일본에서 하고 있다.

한편 인테리어 부문에서는 “타일 카펫(tile carpet)”이 잘 팔려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에코 세이빙 사이클(eco-saving cycle)”이라고 하는 “리사이클 타일 카펫”이 순조롭게 늘어나고 있다. 폐품이 된 “타일 카펫”은 카펫의 바닥 재료로 재활용하고 있는데, 소재별로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타일 카펫을 분쇄하여 완전히 다시 이용하므로 폐기물이 없으며 재생 비용이 싸고 에너지도 절약되는 것이 특징이다.

프린트 카펫은 “아키 디자인(ARCHI DESIGN)” 상표로 통일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주로 골프장, 복합 영화관, 공공 기관으로부터의 주문도 있어 바닥에 예술성이나 기업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한다.♣